

■ 교육

대입 원서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리서치'(RESEARCH)

대입 원서를 최대한 돋보이게 하는 방안으로 '리서치 프로젝트' (research project)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한 학생의 열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업 능력의 깊이를 증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리서치의 장점은 학생이 관심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4세기 일본 미술과 19세기 인상주의 예술 간의 비교를 다룬 연구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한다면, 자신의 탐험 내용에 기반해서 독창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

리서치를 한 경험은 대학에 지원할 때도 혜택을 준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리서치를 한 학생의 99%가 조기 전형 원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리서치 경험을 다뤘다. 또한 리서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얼리 액션이나 얼리 디시전 등 조기 전형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리서치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대학들은 재학생들에게 종종 리서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커리큘럼에서는 AP 리서치, 또는 IB의 에세이 수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리서치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이 리서치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리서치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을 위해 고안된 리서치 프로그램들이 있다. MIT의 RSI(Research Science Institute)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선

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것 외에도 각 지역에서 그 동네 고등학생들을 위해 디자인 된 리서치 프로그램들이 있고, 연구자들과 협업하면서 고등학생이 리서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다. 일부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 온라인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대학 교수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다. 리서치 멘토를 찾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개인적인 커넥션이 없다면 직접 교수나 연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리서치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내가 왜 그 교수와 리서치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또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무엇을 추가하고 싶은지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리서치를 했다면 지원할 대학에 이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대입 원서에 이것을 드러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액티비티리스트'에 포함시켜도 되고, 대학별 추가 에세이를 통해 리서치 경험을 다뤄도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 합격자들은 추천서를 리서치 어드바이저에게 부탁할 가능성이 조기 전형에서 합격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33% 높았다.

리서치 경험이 내가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와 연결되게,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다른 활동들과 연관성이 있도록 만들면 금상첨화이다.

중요한 것은, 리서치 자체가 뚜렷한 열의가 있고 탐구지향적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리서치에 참여해 어떤 학문적 지식을 쌓았으며, 개인적으로 어떤 성장을 했는지 명확하게 대입 원서에 서술할 수 있다면 원서가 더욱 빛날 것이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아이스하우스 캐년 트레일 (Ice House Canyon Trail)

한인들이 많이 찾는 트레일 가운데 하나로 길이는 약 7마일 정도이다. 왕복 소요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을 예상하면 무난하다. 차고 맑은 시냇물, 높이 자란 나무들, 계곡으로 들어서면서 고국의 어느 산을 오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한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철에 잘라서 LA로 공급했다고 한다.

주차장에서 1마일 정도 가면 갈림길이 나온다. 왼쪽 길, Chapman Trail을 택하면 Cedar Glen Trail Camp를 지나 새들까지 갈 수 있다. 오늘은 오르던 길을 따라 그대로 오른다. 2.4마일 지점에 약수터가 나오며 잠시 더 오르면 Chapman Trail과 만나게 된다. 1마일

정도 오르면 Icehouse Canyon Saddle에 도착한다. 이곳에 있는 표지판을 보면-겨울철에는 눈에 덮여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왼쪽은 Telegraph Peak, 가운데는 Cucamonga Peak, 오른쪽은 Ontario Peak으로 연결된다.

■ 가는 길: LA에서 210번 동쪽으로 간다. 57번 Fwy를 지나 Mountain Ave에서 내려 좌회전 한 후 산쪽으로 북상한다. 계속 길따라 올라가면 Mountain Baldy Rd와 연결된다.

길따라 계속 오르다 보면 Mt. Baldy Village를 통과하게 되고 1마일 정도를 더 오르면 삼거리가 되는데 오른쪽 길을 들어서면 왼쪽이 주차장이다.



▲ 아이스하우스 캐년 트레일, 사진=타운뉴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